

코\_ 에스아이피오

# 코스닥 등록을 위한 CEO 숙지사항



**많** 은 벤처 CEO들이 코스닥 등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등록요건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코스닥 등록 준비를 위해서는 코스닥 등록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CEO들이 전문분야에 속하는 코스닥 등록의 질적 혹은 양적인 요건을 시험 공부하듯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분을 변동조항이나 보호예수규정 등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CEO가 알아야 할 코스닥 등록 요건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벤처 CEO는 어떤 것들을 숙지하여야 할까? 먼저,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법인은 심사 청구 6개월 전에 주관증권회사의 주가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6년 이후 코스닥 시장등록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년도인 2005년도에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질 수가 있으므로 짧은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등록예비심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이다.

형식적 요건은 설립경과연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주식분산, 증자제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요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본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대주주 혹은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청구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히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형식적 요건은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며, 몇 가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수월하다. 또, 명문화되어 있고 해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이 제공되므로 근래에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등록 심사의 단락을 결정짓는 요건인 질적 요건이다.

질적 요건은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 등이며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벤처기업은 기술성과 시장성에, 일반기업은 수익성과 시장성에 심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산업별 심사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성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제도를 활용하여 산업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때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 필요

비등록기업이 코스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을 가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결실은 1년 뒤에 맛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또 1년을 미뤄야 할 수 있으며, 다시 1년 뒤에는 사업성이 나빠져서 1년을 더 미뤄야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때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영영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가더라도 아니 간만 못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CEO라면 사전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